

응급구조과 대학생의 죽음불안, 호스피스 지식과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경아 · 조혜영*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hospic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end-of-life care among paramedic students

Kyoung-Ah Kang · Hye-Young Cho*

Department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hospic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end-of-life care among paramedic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96 paramedic students in D university college in J city from November 2011 to November 2014. The study instruments included death anxiety, hospic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end-of-life care. Data were analyzed by t test, ANOVA, post hoc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 20.0.

Results: According to a stepwise regression on th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s end-of-life care, 80.4% of variance ($F=161.360$, $p<.001$) was explained by experience of death, hospices knowledge, disappearance of death anxiety,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 2) and student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In addition, 44.1% of the variance ($F=39.434$, $p<.001$) was explained by experience of death,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 4), warning of others about death anxiety, and family attitude towards end-of-life care.

Conclusion: The attitude towards end-of-life care was influenced by hospices knowledge and death anxiety in paramedic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raining in understanding attitudes towards

Received September 29, 2016 Revised November 18, 2016 Accepted December 19, 2016

*Correspondence to Hye-Young Cho

Department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558, daehak-ro, Gunsan-si, Jeonbuk, 54150, Republic of Korea

Tel: +82-63-469-1989 Fax: +82-63-469-7429 E-mail: elfish80@kunsan.ac.kr

death anxiety and end-of-life care. An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mong paramedic students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death and anxiety hospices knowledge.

Keywords: Anxiety, Death, Hospices care, Knowledge, Paramedic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응급의료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실은 급성기 질환이나 증상으로 방문하는 모든 환자에게 즉각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본연의 목적이다. 그러나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임종을 앞둔 환자나 생애말기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2]. 이러한 이유로 병원 내 응급실은 중증의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임종을 맞이하는 말기환자와 가족의 방문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응급실 근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3]. 그러나 대부분의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응급환자와 임종환자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실질적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응급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전달하고 환자의 사후처치에 대한 신체적인 돌봄과 가족의 정서적인 돌봄까지 제공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1, 5]. 특히 임종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75%의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종사자들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 정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6]. 특히 졸업생의 37.6%가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응급구

조사들[7]의 죽음에 대한 태도정립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임종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8]. 죽음은 정상적인 삶의 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이 맞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두려움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10]. 따라서 보건의료인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다양한 말기환자 요구에 부응하는 치료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11]. 호스피스에 임종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총체적인 돌봄 서비스로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12]. 따라서 임종을 자주 접하게 되는 보건의료인에게는 죽음과 더불어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의 특성과 개인이 처한 상황, 사회적 배경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므로[13] 이에 대한 교육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교육과정에 다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선행연구에 있어 일반대학생에 비해 병원실습이나 교육과정에서 죽음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상당수가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태도를 보였다[14]. 적절한 교육의 부재와 준비되지 않은 채 임종상황에 노출될 때, 의료인들은 언급을 회피하는 등의 방어기제를 쓸 뿐 아니라[15] 두려움, 불안 등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16]. 병원 환경에서의 임종돌봄 서비스는 환자가 존엄한 존재로서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움을 제공

하는 것으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있어 편안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17].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죽음에 대한 태도,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경험, 죽음불안과 임종간호스트레스 등이다[18]. 응급구조과 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병원실습이나 구급실습에서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동일계열에 있어 이루어진 선행연구가 없어 유사계열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상당수가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14]. 따라서 예비 보건의료인으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정립을 통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임종돌봄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11]. 또한 앞으로 병원 및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를 돌보게 되는 임종환자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전달하고 태도를 정립시키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19]. 임종돌봄 태도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대부분 암병동,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10, 20, 21]. 그러나 응급의료서비스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1급 응급구조사나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특히 전공교과과정에서 임종과 호스피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죽음과 임종의 사전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죽음불안과 호스피스 지식 및 임종돌봄 태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죽음불안과 호스피스 지식이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래의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의료현장에서 돌보게 될 임종환자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대학의 응급구조과 2학년을 대상으로 죽음불안, 호스피스 지식 및 임종돌봄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임종

돌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호스피스 지식, 임종돌봄 태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죽음불안, 호스피스 지식, 임종돌봄 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죽음불안, 호스피스 지식 및 임종돌봄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임종돌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년간 전공교과목인 응급환자관리학에 포함된 ‘임종 및 호스피스 간호’의 주제를 가지고, 정규 수업을 통한 본 주제를 학습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본 자료는 응급구조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료는 4년간의 자료를 합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에 위치한 D대학교 일개 응급구조과 196명의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총 196명을 편의표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Cohen(1988)의 검정력 분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α)=.05, 회귀분석의 중간크기 효과 .25, 검정력($1-\beta$)은 .80으로 설정하여

G-power 3.1.2 version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60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였을 때 176명이 필요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96부를 배포하여 탈락률 없이 100% 회수하여 모든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공교과목인 응급환자관리학에 포함된 ‘임종 및 호스피스 간호’의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먼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 및 거부 권리를 설명하였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고지하였다. 대상자들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명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였으며 설문지는 설문 작성 후 바로 회수되어 회수용 봉투에 담아 밀봉되었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자가 응답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죽음불안, 호스피스 지식, 임종돌봄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죽음불안

본 연구에서 죽음불안은 Park[22]이 개발한 도구로 각 문항의 내용은 고립감(4문항), 타인에 대한 염려(4문항), 사후의 불확실성(5문항), 능력상실(4문항), 존재가 없어짐(3문항), 죽음의 장소 및 방법(3문항), 죽음의 의미(11문항)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였다.

2) 호스피스지식

본 연구에서의 호스피스 지식은 Ross 등[23]이 개발한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pCQN)과 응급환자관리학[24]을 참조로 20문항을 구성하였다. 호스피스에 대한 개요 4문항, 증상관리 12문항, 심리사회적 측면 관리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에 대해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고 정답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였다. 점수 범위는 0-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타당도를 위해 응급실 근무경력 8년의 응급구조사 1인, 노인간호 전공 간호학 교수 1인, 응급구조과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세부항목별 Cronbach's $\alpha = .76 \sim .92$ 였으며 전체적인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 였다.

3) 임종돌봄 태도

본 연구에서의 임종돌봄 태도는 Frommelt[25]이 개발한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Scale(FATCOD)도구를 Cho와 Kim[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환자에 대한 태도(22문항)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태도(8문항)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돌봄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 = .94$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죽음불안, 호스피스지식, 임종돌봄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호스피스지식, 임종돌봄 태도는 t-test, ANOVA를 이용하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죽음불안, 호스피스지식, 임종돌봄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죽음불안, 호스피스 지식이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호스피스 지식, 죽음 불안, 임종돌봄 태도의 정도

대상자의 죽음불안 정도는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고립감이 7.61점(±1.79), 타인에 대한 걱정이 11.80점(±2.70), 사후의 불확실성이 12.24점(±2.59), 능력상실이 7.78점(±1.63), 존재 없어짐이 8.37점(±1.47), 죽음의 장소 및 방법이 6.29점(±1.30), 죽음의 의미가 29.66점(±5.36)이었다. 대상자의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 정도는 14.12점(±1.65점)이었고 임종돌봄 태도에서는 환자에 대

한 태도가 64.31점(±10.33), 가족에 대한 태도가 25.53점(±4.51)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돌봄 태도

본 연구 대상자는 응급구조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96명으로, 남자가 89명(45%)과 여자 107명(55%)으로 구성되어 여성이 많았고 평균연령은 21.90세(±1.30)였다. 종교를 가진 학생이 99명(51%)이었으며 죽음의 경험을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5명(38.3%)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3.66점(±1.01)으로 증상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5점 만점에 2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22명(11%), 3점으로 응답한 인원이 72명(37%)이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는 3.31점(±10.02)로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2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은 27명(14%)이었고, 3점으로 응답한 인원은 67명(34%), 4점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은 102명(52%)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종이나 죽음에 대한 경험 ($p=.035$)과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p=.038$)에서

Table 1.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and death anxiety (N=196)

Variables	Possible range	Range	Mean±SD
Knowledge of hospices	0-20	10-17	14.12±1.65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30-150	64-128	90.48±13.06
Patient	22-110	44-94	64.61±10.33
Family	8-40	18-36	25.53±4.51
Death anxiety	34-136	69-106	85.19±7.78
Isolation	4-16	4-13	7.70±1.80
Uncertainty of after death	5-20	5-16	12.37±2.55
Lose of ability	4-16	4-13	7.86±1.64
Disappearance of existence	3-12	5-11	8.28±1.49
Place and method	3-12	4-9	7.65±1.45
Meaning of death	11-44	12-42	29.51±5.36
Warning of others	4-16	6-16	11.83±2.6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2점 이하인 경우, 4점 이상, 3점 등의 순으로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가 높았다. 사후 검정결과,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2점 이하인 경우와 3점인 그룹간에 환자 임종돌봄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p=.040$)와 죽음에 대한 경험($p=.001$),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p=.03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4점 이상인 경우와 2점 이하, 3점의 순으로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가 높았다. 사후 검정결과,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3점인 경우와 4점 이상인 경우 간에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3. 호스피스 지식, 죽음불안, 임종돌봄 태도간의 상관관계

응급구조과 학생의 호스피스 지식 및 죽음불안의 하부요인과 임종 돌봄태도의 하위 영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는 호스피스 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호스피스 지식이 많을수록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r=.880, p<.001$).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는 죽음불안에 대한 하부요인 중 타인에 대한 걱정($r=-.638, p<.001$)과 존재 없어짐($r=-.678, p<.0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는 호스피스 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호스피스 지식이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Table 2. Difference of attitude toward of end-of-life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Characteristics	N	Attitude toward of end-of-life care						
		Patient			Family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Male	89	65.99±11.95	1.362	.075	26.01±4.86	1.298	.190
	Female	107	64.03±8.11			25.19±4.03		
Age	≤21	136	65.13±10.04	-.448	.655	25.99±4.68	-2.067	.194
	≥22	60	64.43±10.16			24.58±3.67		
Religion	Yes	99	63.53±9.41	-1.974	.050	26.00±4.43	1.403	.162
	No	97	66.34±10.53			25.11±4.42		
Experience of death	Yes	75	67.95±10.09	3.409	.001	27.89±4.18	6.353	<.001
	No	121	63.04±9.60			24.12±3.96		
Major satisfaction	≤2	22	67.45±5.53	1.119	.329	26.18±5.12	.324	.724
	3	72	65.33±10.86			25.32±4.20		
	≥4	102	64.08±10.18			25.60±4.4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2a	27	68.81±9.28	3.331	.038	25.22±4.75	3.752	.025
	3b	67	63.01±9.25		(a>b)*	24.49±3.86		(c>b)*
	≥4c	102	65.14±10.51			26.35±4.58		

* : Scheffé

Table 3.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and death anxiety (N=196)

Variables	Knowledge of hospices r(p)	Death anxiety r(p)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r(p)	
		Isolation	Warning of other	Uncertainty of after death	Lose of ability	Disappear of existence	place and method	Meaning of death	patient	Family
Death anxiety	Isolation	.029 (.683)	1							
	Warning of other	-.722 (.000)	-.124 (.084)	1						
	Uncertainty of after death	-.080 (.264)	.415 (.000)	.082 (.252)	1					
	Lose of ability	.092 (.199)	.040 (.582)	-.070 (.328)	.344 (.000)	1				
	Disappearance of existence	-.654 (.000)	-.011 (.878)	.326 (.000)	-.032 (.653)	-.276 (.000)	1			
	Place and method	-.147 (.040)	-.097 (.175)	-.131 (.067)	-.305 (.000)	-.185 (.009)	.254 (.000)	1		
	Meaning of death	.039 (.588)	.073 (.311)	.018 (.799)	.035 (.628)	.077 (.282)	.052 (.471)	.093 (.193)	1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Patient	.880 (.000)	.020 (.785)	-.638 (.000)	-.046 (.520)	.179 (.012)	-.678 (.000)	-.178 (.013)	-.103 (.153)	1
	Family	.588 (.000)	.216 (.002)	-.566 (.000)	-.092 (.200)	.090 (.209)	-.293 (.000)	.069 (.339)	.165 (.021)	.560 (.000)

수 있었다($r=.588, p<.001$).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는 죽음불안에 대한 하부요인 중 타인에 대한 걱정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566, p<.001$).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와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r=.560, p<.00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의 임종경험과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호스피스 지식과 죽음불안의 항목과 함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의 기본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

한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1.461로 2에 가까운 값으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455~0.816)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861~2.112으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죽음의 경험($\beta = -.071, p=.045$), 호스피스 지식($\beta = .807, p<.001$), 죽음불안의 세부항목 중 존재 없어짐($\beta = -.142, p=.001$),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2점 이하인 경우($\beta = .115, p=.001$),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beta = .273, p=.004$)가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들의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대한 총 설명력은 80.4%였다.

임종돌봄 태도 중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의 임종경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호스피스 지

식, 죽음불안의 세부항목 중 타인에 대한 걱정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값은 1.363 공차한계는 (0.437~0.983)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인자(VIF)는 1.017~2.290으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죽음의 경험($\beta = .203, p = .001$), 과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4점 이상인 경우($\beta = .201, p < .001$), 죽음불안의 세부항목 중 타인에 대한 걱정($\beta = -.200, p = .014$), 호스피스 지식($\beta = .369, p < .001$),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beta = .423,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들의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대한 총 설명력은 44.1%였다(Table 4).

IV. 고 찰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의 호스피스 지식과 죽음불안, 임종환자 돌봄태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임종돌봄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일개 대학의 응급구조과 2학년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급구조과 학생의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은 20점 만점에 14점, 죽음불안은 136점 만점에 85.2점, 임종돌봄 태도 중 환자에 대한 태도는 110점 만점에 64.6점, 가족에 대한 태도는 40점 만점에 25.5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호스피스 지식과 죽음불안정도, 임종돌봄 태도는 응급구조 직종에서 연구가 없었기 때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N=196)

Predictors	B	β	t	p	R ²	Adj. R ²	F	p	Durbin-Watson
Attitude of patient	Constants		.254	.799	.809	.804	161.360	<.001	1.461
	Knowledge of death	4.995	.807	17.537	<.001				
	Disappearance of existence	-.961	-.142	-3.290	.001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 2)	3.345	.115	3.255	.001				
	Experience of death	-1.465	-.071	-2.019	.045				
	Attitude of family	.273	.121	2.947	.004				
Attitude of family	Constants		3.170	.002	.452	.441	39.434	<.001	1.363
	Knowledge of death	1.008	.369	4.749	<.001				
	Experience of death	1.849	.203	3.355	.001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 4)	1.778	.201	3.716	<.001				
	Warning of other	-.342	-.200	-2.474	.014				
	Attitude of patient	.187	.423	6.390	<.001				

에 대표적 보건계열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응급실 의료진,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호스피스 지식은 20점 만점에 14.1점이었다.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대상임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자가 개발한 지식 측정 도구를 사용했으므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와 동일한 선상에서의 비교가 어려웠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료인인 의사가 10.39점(1점 환산 0.56점)과 간호사는 9.23점(1점 환산, 0.51점)[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호스피스 지식 측정도구에 따라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응급구조과나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측정도구의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호스피스 지식은 호스피스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7] 호스피스 관련 교육은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11]. 본 연구대상자는 응급구조과 2학년 학생으로 전공교과목인 응급환자관리학에서 임종 및 호스피스 교육을 아직 받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교과과정에서 죽음과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주변 사람의 임종경험은 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자이므로 교육을 통한 간접경험을 높이는 것도 호스피스 지식을 높이는 방법이다.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죽음불안 점수는 85.2점으로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51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죽음불안 점수를 살펴보면 2.26점(4점만점)으로[28] 본 연구보다 높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108.6점이 나왔으며[18]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2.66점(5점 척도)으로[10] 본 연구결과보다 죽음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는 병동과 중환자실, 응급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업무영역이 병원 내 응급실에 국한되고 구급업무 위주인 응급구조과 영역보다 죽음과 임종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경험이 죽음불안을 가중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죽음불안은 2.62점으로[29]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이 또한 직종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간호대학생이 체감하는 것보다 낮았다. 선행연구에서 집단의 다수가 여성인 경우일수록 죽음불안이 높았는데[28], 간호사와 자원봉사자, 간호대학생은 여성이 대부분이었고 응급구조과는 남학생 비율이 높아서 이러한 이유가 응급구조과 학생의 죽음불안이 낮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와 의사의 경우 임상경력과 죽음에 대한 긍정의식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적 책임의식이 죽음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죽음관여도나 생명존중의식 같은 직업적 책임 측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26]. 선행연구에 의하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호스피스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9, 12].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죽음 불안정도는 중정도를 측정되었으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급구조과 학생의 임종돌봄 태도는 150점 만점에 90.5점으로 나타났다. 점수를 5점으로 환산했을 때 3.01점으로 중정도인 것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3.04점(4점 환산)[30] 보다는 비교적 낮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사의 경우, 3.12점으로 간호사인 경우가 3.33점으로[26]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교적 남성 비율이 높은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여성비율이 높은 간호학과와 경우가 임종돌봄 태도가 더 높았다. 또한 의사군 내에서도 여성인 경우가 남성인 경우보다 임종환자 돌봄 태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31]. 직종별로 비교할 때도 간호사군이 의사군보다 높은 결과를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임종돌봄 태도가 높은 선행연구 [26]를 지지한다. 이는 임종환자 돌봄 태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성별 성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응급구조과 학생의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죽음의 경험, 호스피스 지식과 죽음불안 요소 중 존재 없어짐,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였다. 이 요인들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임종환자 돌봄을 80.4%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경험이 적을수록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달 간 임종경험을 한 횟수가 적을수록 임종환자 돌봄 태도가 높아진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26]. 또한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와 임종이나 죽음의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 대학생에 비해 보건계열 대학생의 상당수가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태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14]. 그러나 일부의 선행연구들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경우 환자의 임종을 많이 경험하고 경력이 많을수록 임종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긍정적인 임종태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32, 33].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경력이 길어질수록, 임종관련 교육의 경험이 많을수록 임종돌봄 태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아[20, 34] 개인적 성향과 직업적인 책임을 고려한 임종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이를 통해 숙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죽음의 경험이 적을수록 환자에 대한 임종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실습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죽음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응급실에서의 죽음은 임종에 있어 의료진이 개입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급실무에서의 죽음의 경험은 대부분 단순 이송으로 마치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죽음이 단순히 사건으로만 인식되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죽음의 모습이 실습기관이나 가정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병원내 응급구조사와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으로 확대시키거나 향후 죽음의 경험 장소를 세분화하여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지식이 높을수록 임종돌봄 태도가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종돌봄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있는 요인이 호스피스 완화 지식임을 보여준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은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35] 장차 응급의료체계에서 많은 임종환자를 경험하게 될 응급구조과 학생들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죽음불안의 세부항목 중 존재 없어짐에 대한 영역이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며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교육임을 강조한다[19]. 이처럼 교육을 통한 죽음불안을 감소시킨다면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임종환자와 가족에게 양질의 임종돌봄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임종돌봄에는 환자를 포함한 가족까지 그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죽음의 경험, 호스피스 지식과 죽음불안 요소 중 타인격적,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였다. 이 요인들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임종환자 돌봄을 44.1% 설명하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죽음불안의 하위 요소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와 대부분 유사하였다.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의 경우 죽음불안 하위요소 중 존재 없어짐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왔으며,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종돌봄을 제공함에 있어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인지하는 가장 큰 불안요소는 존재감의 소멸이었다. 가족에 대한 임종환자 돌봄 태도에서는 죽음불안 하위요소 중 타인격적에 대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임종환자 돌봄에서 포함되는 가족의 지지방법에서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법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이 항목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죽음불안의 하위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세부방안들이 향후 죽음 및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2이하인 경우,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4 이상인 경우,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환자에 집중한 임종돌봄 태도가 높

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가 높음을 뜻하는 것으로 학생 스스로가 인지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돌봄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5점 척도로만 측정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1. 결론

본 연구는 미래의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전 상황과 병원에서의 응급의료체계에서 주축을 이루될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지식과 죽음불안, 임종환자 돌봄의 정도를 알아보고,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 보았다. 또한 호스피스 지식과 죽음불안, 임종돌봄 태도의 각 영역별 상관성을 확인하고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호스피스 지식은 14.1점, 죽음불안은 85.2점, 임종돌봄 태도는 90.5점으로 중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죽음경험과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호스피스 지식, 죽음불안의 하위요소 중 존재 없어짐이었으며 환자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대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80.4%였다. 또한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호스피스 지식, 죽음경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죽음불안의 하위요소 중 타인에 대한 거

정이었으며 가족에 대한 임종돌봄 태도에 대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44.1%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임종돌봄 태도를 긍정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임종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교과과정이나 비교과과정에서 적절한 임종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응급구조과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임의 추출한 충청권 소재의 1개 대학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와 지역적인 편중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응급구조사 및 응급구조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임종환자 돌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 조사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적합한 연구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임종돌봄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Jung MS.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ancer patients in the emergency room in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9, Seoul, Korea.
2. Song JW. Characteristics of frequent users in an emergency depar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Seoul, Korea.
3. Jeon MH. Recognition among nurses and doctors about the death in ER & ICU.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8, Seoul, Korea.
4. Hogan KA. Caring for adult patients who di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 reflections of emergency room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Ottawa 2008, Ottawa, Canada.
5. Choi EH, Lee EN.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nurses and patients at emergency departm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402-12.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3.402>
6. Statistic Korea, 2014 Death Statistics, 2016. Available a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51953
7. Jung, SW, A Study on increasing paramedics' role in hospitals- Focusing on paramedics and nurses in the emergency room -.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6, Incheon, Korea.
8. Cho YC, Emergency nurses' perception of death and terminal care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1, Suwon, Korea.
9. Shin EJ. Influence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on meaning in life, death anxiety.

-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1;22(3):65-74. <https://doi.org/10.7231/JON.2011.22.3.065>
10. Hong EM, Jun MD, park ES, Ryu EJ. Death perceptions,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 death in oncology nurses. *Asian Oncology Nursing* 2013;13(4):265-72. <https://doi.org/10.5388/aon.2013.13.4.265>
 11. Lee YE, Choi EJ, park J S, Shin SH. Perception and knowledge of hospices care and attitude toward death held by medical professionals from the same region in Korea. *Korean J Hospices Palliat Care* 2013;16(4):242-52. <https://doi.org/10.14475/kjhpc.2013.16.4.242>
 12. Korean Catholic Hospices Association. *Understanding of hospices*. Seoul: Hyunmoonsa, 2005.
 13. Yu, MR. Perception of death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4, Jeonju, Korea.
 14. Jung SY, Lee EK, Kim BH, park JH, Han MJ, Kim IK. Attitude toward death in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1;17(2):168-77.
 15. Chi KA, Kim, EJ. Factors influencing nurse's attitude toward hospice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5;14(3):285-91.
 16. Kim YH. A study of nurses burden and attitude on terminal cancer patients. *Asian Oncology Nurs* 2001;1(1):65-74.
 17. Cho HJ, Kim ES. The effect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and attitude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 *Korean J Hospices Palliat Care* 2005;8(2):163-72.
 18. Yang SA.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erminal care attitud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5; 6(4):73-88. <https://doi.org/10.15207/JKCS.2015.6.4.073>
 19. Thompson E H. Palliative and curative care nurses' attitudes toward dying and death in the hospital setting. *OMEGA J of Death and Dying* 1985;16(3):233-75.
 20. Kim SJ. Death anxiety and terminal care, attitudes of nurses in hospices palliative units. *Nursing Science* 2015;27(1):23-34.
 21. Lee KJ, Park YS. Nurses' spirituality and attitude toward terminal care in geriatric hospital. *J of Digital Convergence* 2015;13(12):347-57. <https://doi.org/10.14400/JDC.2015.13.12.347>
 22. Park EK.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oncer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1995, Seoul, Korea.
 23. Ross MM, McDonald B, McGuinness J. The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pCQN):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urse's knowledge of palliative care. *J of Advanced Nurs* 1996;23(1):126-37.
 24. Korean Council of Professor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Emergency care*. 11th ed. Seoul: Daehak seorim, 2010.
 25. Frommelt KH.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nurse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erminally ill persons and their families. *Am J of Hospices and Palliative Care* 1991; 8(5):37-43.
 26. Nam KH, Lee JH, Cho EH, Kim CO. Factors related to emergency department health-

- care providers' attitudes towards end-of-life care.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6;19(1):11-25. <https://doi.org/10.14475/kjhpc.2016.19.1.11>
27. Lee YE, Choi EJ, park JS. Effects of hospices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on knowledge of hospices and palliative care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Public Health Nurs* 2012;26(2):280-8. <https://doi.org/10.5932/JKPHN.2012.26.2.280>
 28. Yoon MO. Effect of a Death preparing education program on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life in volunteers. *Korean J hospices and Palliat Care* 2009;12(4):199-208.
 29. Eo DY. Nurses' death anxiety and attitude concern hospices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2013, Busan, Korea.
 30. Jo MJ.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ospices Palliat Care* 2015;18(4):306-13. <https://doi.org/10.14475/kjhpc.2015.18.4.306>
 31. Bradley EH, Cramer LD, Bogardus ST Jr., Kasl SV, Johnson-Hurzeler R, Horwitz SM. Physicians' ratings of their knowledge, attitudes, and end-of-life-care practices. *Acad Med* 2002;77:305-11.
 32. Noh SS. A study on death perception, terminal care attitude,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Seoul, Korea.
 33. Hong EM, Jun MD, Park ES, Ryu EJ. Death perceptions,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 death in oncology nurses. *Asian Oncol Nurs* 2013;13:265-72. <https://doi.org/10.5388/aon.2013.13.4.265>
 34. Mallory JI. The impact of a palliative care educational component on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03, North Carolina, USA.
 35. Kim SE. Knowledge of hospices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2014, Busan, Korea.